

# 부산 스포츠 특이

Vol. **39**  
2023. 07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부산체육인

부산체육의 선순환을 바라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원욱 부회장

## 영광의 인물

꾸준함은 결과를 속이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조정협회 이중우 부회장

## 부산체육의 미래

차세대 마린보이의 금빛 유영!  
분포초등학교 수영부 공건 선수

## 구·군체육회를 가다

세계에 부산을 알리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 BSC 뉴스

- 제18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 제4회 부산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개최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 부산체육인

부산체육의 선순환을 바라보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박원욱 부회장



## 영광의 인물

꾸준함은 결과를 속이지 않는다

- 부산광역시조정협회 이종우 부회장



## 부산체육의 미래

차세대 마린보이의 금빛 유영!

- 분포초등학교 수영부 공건 선수



## 구·군체육회를 가다

세계에 부산을 알리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 BSC 뉴스

- 제18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 제4회 부산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개최



# 부산체육의 선순환을 바라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원욱 부회장

스포츠에 관심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팬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중 전문선수가 배출되면서 부산체육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척추측만증 분야에 권위 있는 의사로 명성이 자자한 박원욱 원장. 오랫동안 부산 시민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져 오던 그가 부산 체육인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행보도 함께하고 있다.

“수영구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오랜 시간 시민들과 함께했지만, 시민들의 체육 활동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부산의대 재학시절 야구팀에서 함께 활동하던 친구의 형이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이셨는데, 제게 수영구 배드민턴대회 후원을 부탁하셨죠.”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박원욱 원장은 흔쾌히 수락했다. 2016년 수영구배드민턴협회의 배드민턴대회를 시작으로 부산환경공단 신춘 족구대회, 수영구청의 구민 SUP대회 등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오고 있다.



이런 활동 덕분에 박 원장은 2018년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사를 거쳐 현재 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스포츠와 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박 부회장은 병원 내 많은 체육인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육계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체육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전문선수가 많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생활체육 활성화부터라는 생각을 전했다.

“나도 저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 선수들의 힘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프로 선수가 생활체육 현장에 방문해준다면, 혹은 사인회와 같은 이벤트를 연다면 생활체육인들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스포츠에 관심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팬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중 전문선수가 배출되면서 부산체육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 꾸준함은 결과를 속이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조정협회

이중우 부회장

부산시에서도 국제대회나  
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정이라는 스포츠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거쳐 항만·해양 산업분야에 평생의 열정을 쏟아온 이중우 부회장. 포항 구룡포에서 자란 그의 삶은 ‘물’과 맞닿아 있다.

“대입 시험에 특차로 선발되어 일찍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당시 기숙사에는 훈련을 위해 합숙하던 각 동아리 반장들이 동아리에 입회시킬 신입생을 물색 중이었고, 저는 조정 동아리의 반장 눈에 띄었죠.”

조정은 있는 힘껏 노를 저으며 물살을 갈라야 하므로 탄탄한 체격을 갖추어야 경기에 유리하다. 다부진 체격의 이중우 부회장의 신체 및 체력 조건은 모두 조정에 부합했던 것.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조정은 이중우 부회장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이중우 부회장은 에이트(8인) 조정을 했는데, 물의 움직임과 서로의 뒷모습만 보고 동작을 맞추어야 하므로 서로 호흡을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조정을 통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선수가 된 이상 ‘이건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매 순간 전력을 다해 임했다.

“꾸준함은 결과를 속이지 않고, 또한 속일 수도 없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조정과의 연을 이어온 이중우 부회장은 부산이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조정 경기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다.

“부산시는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참 좋은 도시예요. 강과 호수에 국한되지 않고, 비치 조정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부산시에서도 국제대회나 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정이라는 스포츠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중우 부회장에게 조정은 거센 물살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새로운 인생관을 선물해준 것처럼, 조정이 부산에서 더욱 주목받는 종목이 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수영부 공건 선수



차세대 마린보이의 금빛 유영!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영 종목(4학년이하부)에 출전한 공건 선수가 배영과 자유형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공건 선수는 지난 5월 초 갑자기 발에 통증이 생겼다. 수영 훈련 중 발차기를 열심히 했던 탓에 염증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부상 중이었지만, 공 선수는 기록을 세워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 공건 선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 배영50m 31.76초, 자유형50m 28.34초를 기록하며 2종목 모두 신기록 달성을 하였다.

기록을 단축하고 갱신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는 공건 선수. 그의 롤모델은 박태환 선수다. 체격 조건부터 기록까지 박태환 선수 이상으로 성장하고 기록을 세워, 꼭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누구보다 수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공건 선수, 그의 찬란한 금빛 유영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 세계에 부산을 알리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이하 해운대구체육회)는 ‘건강한 해운대 행복한 구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종 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체육회에서는 2016년부터 송정서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800여 명의 인원이 참여, ‘재방문 희망률 99%’를 자랑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또한 해운대구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꼽히는 만큼 전국 및 국제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대회로는 매년 유소년클럽 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 비치 얼티밋 챔피언십 2023’과 ‘2023 아시아 도시대항 국제 비치카바디 대회’ 같은 국제대회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종목을 구민들에게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는 앞으로 구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를 기울이고 열려있는 체육회가 되고자 한다.





# 제18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여성체육동호인 1,200여 명 참가

부산 여성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8회 여성체육대회가 지난 6월 1일(목)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여성체육대회는 부산 여성 동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 주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등 5개소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6개 종목(국학기공, 탁구, 테니스, 볼링, 배구, 체조)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탁구, 배드민턴), 1,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아름다운 경쟁과 건강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축제가 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오늘 이 대회가 여성 동호인들의 따뜻한 정과 건강한 활력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제4회 부산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개최

부산관내 초·중학생 선수 200명 참가, 아쿠아슬론대회 방식으로 진행

지난 6월 3일(토) 제4회 부산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가 부산국민체육센터와 구덕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재능있는 지역 꿈나무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개최되어 여느 해보다 더 뜻깊었다.

이날 대회는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아쿠아슬론대회(수영, 달리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관내 초·중학생 선수 200명 및 학부모·지역동호인 등이 참석하여 경쟁과 관계없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선수들은 부산광역시 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가 연계하여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꿈나무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